

수정 주가는 무엇입니까?

증자, 강자, 액면 분할, 배당 ...

수정 주가(Adjusted Closing Price)는 기업 행동을 고려한 후 해당 주식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종가를 수정한 것을 말하며, 영어 단어 그대로는 조정된 종가를 의미합니다. 수정 주가는 과거 수익률을 조사하거나 과거 실적을 상세하게 분석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핵심 요약

- 수정 주가는 기업 활동을 고려한 뒤 해당 주식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주가의 종가를 수정한 것입니다.
- 종가는 시장이 마감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의 현금 가치인 원시 가격입니다.
- 주식 분할, 배당 및 권리 제공과 같은 기업 활동은 수정 주가의 대표적인 요소들입니다.
- 수정 주가는 주요 명목 가격과 주식 분할이 단기적으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정 주가의 이해

주식의 가치는 종가와 수정 주가로 표시됩니다. 종가는 시장이 마감되기 전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의 현금 가치를 원시 가격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수정 주가는 시장 마감 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합니다.

☆ 주식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식 분할, 배당 및 권리 제공과 같은 일부 기업 활동은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정을 통해 투자자들은 주식의 실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조치가 주식의 수정 주가에 어떻게 회계 처리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분석가들에게 기업의 지분가치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과거 수익률을 조사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골 섬에 살고 있는 시골썸입니다. 여러분들은 약 2년 전 삼성전자가 1:50의 비율로 주식을 액면분할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액면분할 전에 250만 원 정도에 거래되던 주식을 50조각을 내서 5만 원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죠. 그런데 250만 원 하던 주식이 50조각이 났으니 한 주당 가치는 98% 떨어졌지만, 전체 주식의 수량은 50배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시가총액은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깐 기업 가치에 대한 본질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성은 왜 이렇게 쓰잘 때기 없어 보이는 액면분할을 단행했을까요?

이 액면분할은 250만 원 밑으로 투자를 할 소액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자, 한 주당 가격이 싸 보이게 만드는 착시 현상을 통해 활발한 투자가 일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이자, 유통주식수가 확대돼서 더욱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결국은 주가 상승을 노리기 위해서 결정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년 전의 삼성전자의 주가와 지금 현재의 삼성전자의 주가를 비교하려고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과거의 주가에 나누기 50을 한다거나, 현재의 주가에 곱하기 50을 해서 비교를 해야 과거와 현재의 정확한 주가 비교가 가능하게 돼요. 물론 액면분할이라는 이벤트만 일어난다면 계산이 간단하니, 이런 식으로 암산으로 간단히 비교가 가능한데요. 액면분할이 추가로 몇 차례 더 일어났다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통한 권리락이 일어났다가, 배당을 통한 배당락이 일어나는 이벤트가 있었다면 이렇게 간단히 암산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시골섬 · 2020.08.20 11:19

제가 사용한 "12원"은 과거와 현재의 주가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수정주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무상증자, 유상증자, 배당, 액면분할등이 생기면 차트는 연속성을 잃고 단층을 보이게 되는데, 이
경우 이전주가와 현재의 주가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주가의 연속성을 부여
하기 위해서 이를 보정한 수정주가를 사용하거든요.

본문에 수정주가를 사용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오해가 있으셨나봐요. 헛갈리게 글을 적어놓아
서 죄송합니다. 오상헬스케어 주식이 12원에 거래된 적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니깐요.

다만, 오상헬스케어 주가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쓴 글이니 화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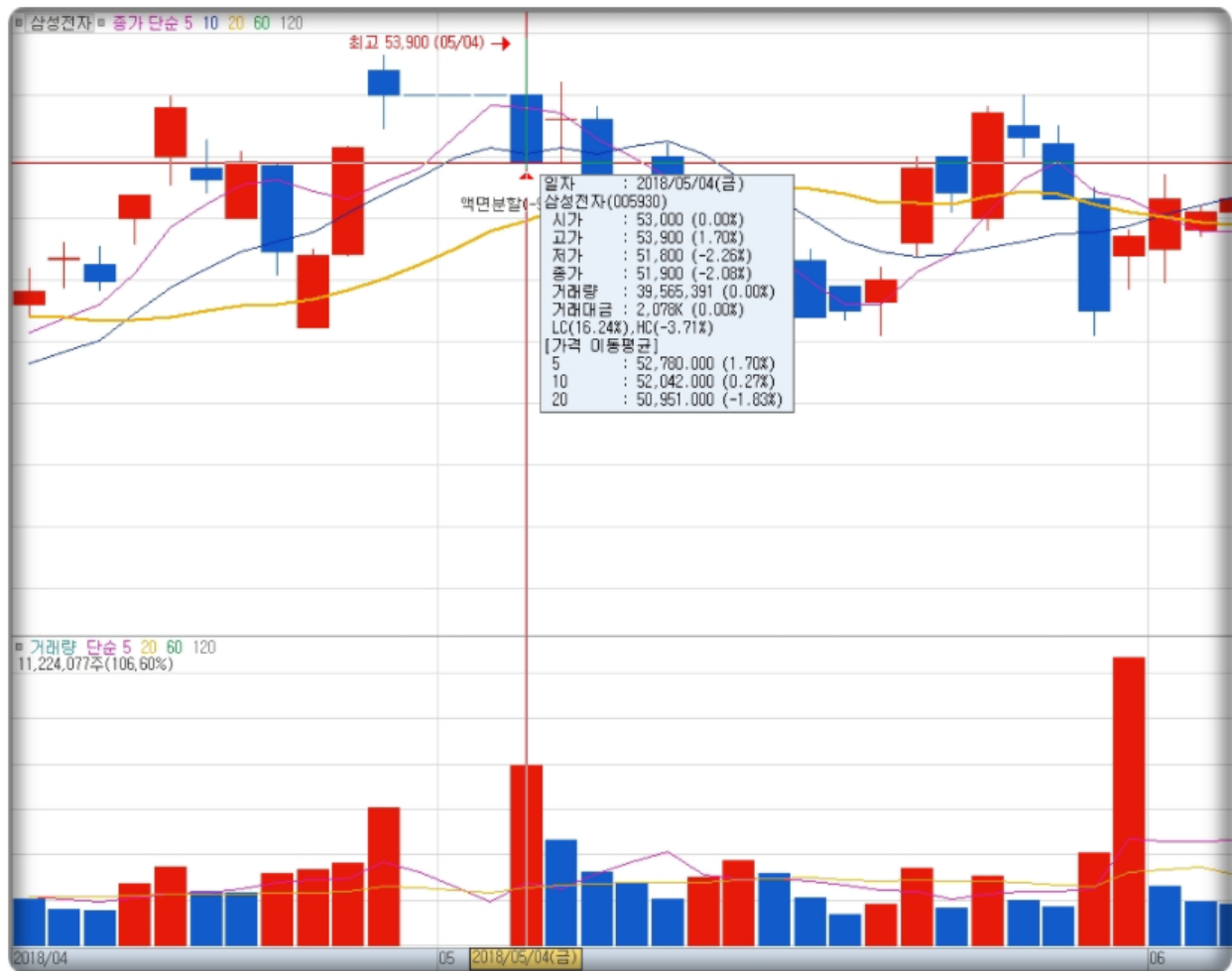
그리고 저도 배우면서 글을 쓰는 입장이기에, 제 글의 오류를 지적하는 비판은 언제나 환영입니
다.



그래서 전 이렇게 댓글을 달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깐 무상증자, 유상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의 이벤트가 일
어난다면 주가 차트는 연속성을 잃고 단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주가가 얼마
나 올랐는지 혹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상증자나 유
상증자의 권리락, 액면분할, 배당의 배당락을 보정해주는 것이 수정주가라는 것이에요.



2018년 5월 4일 액면분할이 일어난 삼성전자 주가의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단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주가 변화를 직관적으로 알아보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수정주가로 변환을 하면 액면분할 전의 주가도 250만 원 대가 아닌 나누기 50을 해서 자동으로 5만 원 대로 계산해서 보여준답니다. 이것을 바로 수정주가라고 하는 것이예요.

↑ 가장 최근 종가의 스케일로 이전 내역들을 변환함.